

# 사교육비 지출 사상 최대 가구당 月 15만 2,054원

도시에 살고 있는 가구는 한달에 사교육비로 15만2천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조사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5.7배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통계청의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15만2천5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만5천911원에 비해 11.9% 급증했으며 2·4분기의 14만8천618원에 비해서도 2.3%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수지 조사에서 학원 및

## 참여정부 출범후 32% ↑ ... 소득별 격차도 6배 달해

개인교습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2003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 2003년 3·4분기의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11만4천523원으로 4년 만에 무려 32.7%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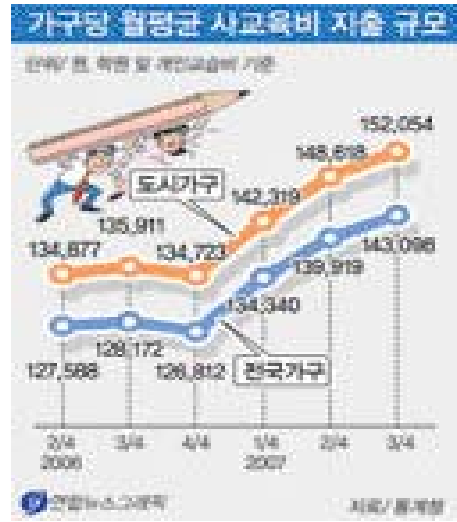
이에 반해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9만4천원으로 작년동기대비 8.3% 늘었고 2003년 3·4분기에 비해서는 18.2% 증가하는데 그쳐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세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 기준으로도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3·4분기에 14만3천98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1.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전국가구의 경우 소득 5분위의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8만201원이며 1분위는 4만9천184원으로 5.7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3·4분기 5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368만2천원)과 1분위의 소비지출(109만원)의 격차인 3.37배보다 훨씬 큰 것으로 사교



육비 양극화가 전체 소비의 양극화보다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계수지 항목의 보충교육비는 학원 및 개인교습비의 비중이 90% 안팎을 차지해 사실상 사교육비로 간주된다.

전국가구의 5분위와 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 격차는 지난해 4·4분기의 6.2배에서 올해 1·4분기 6.5배로 커졌다가 2·4분기에는 4.9배로 줄었고 3·4분기에는 5.7배로 다시 벌어졌다. /연합뉴스

## 은행 보험상품 규제 강화

### 재경부, 규모 줄이고 부실판매면 법적 책임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지금보다 줄어들고 판매 책임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임승태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경영인 모임에 참석해 내년 4월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면 '25% 룰'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예컨대 25% 룰을 10% 룰로 변경하는 은행의 지배력 억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 룰은 은행이 1개 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보험 상품의 25%까지만 팔도록 하는 규제다. 이를 10%로 낮추면 은행은 최소 10개 보험사와 제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계열 보험사 밀어주기나 물론 보험권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임 국장은 "4단계 방카슈랑스는 단순히 상품 판매 확대의 문제가 아니며 제대로 판매가 이뤄지는데 중요하다"면서 "불완전(부실) 판매에 대한 은행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약자고용 '사회적 기업 탄생'

20일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 인증식'에 참가한 36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사회적 기업의 탄생을 축하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고용, 직업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을 다시 공익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사명을 띠게 된다. /연합뉴스

## 미국발 악재에 어김없이 '휘청'

### 외국인 매도 공세...코스피 21.23P ↓ 코스닥 11.32P ↓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증시마저 급락하자 국내 증시가 나뉘며 하락했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1.23포인트(1.12%) 내린 1,872.24에 마감됐다.

전날 2개월 만에 증가 기준으로 1,900선을 내렸던 지수는 이날 40.06포인트(2.12%) 내린 1,853.41로 출발,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 이동평균선(1,877)을 밑돈 뒤 낙폭을 점차 키웠다.

전날 뉴욕증시는 골드만삭스가 씨티그룹의 부실자산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투자견해를 하향조정할 영향으로 신용위기가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하락했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심리적 지지선인 13,000선 밑으로 다시 떨어진 충격이 한국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코스닥지수도 11.32포인트(1.51%) 내린 739.47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코스닥지수는 이날 장종 1,819.18, 723.61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아시아증시가

속속 반등한 가운데 외국인의 늘어나는 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받아낸 데다 미국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엿보이며 막판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각각 936조8천727억 원, 101조8천343억 원으로, 1천조원 선을 지켰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천109억원, 27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일 연속, 코스닥시장에서는 4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의 하락종목은 532개, 상승종목은 263개였고, 코스닥시장도 상승종목 275개에 비해 하락종목이 684개로 더 많았다.

국토신한증권 이선영 애널리스트는 "다우지수의 경기선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증시의 지지선도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지지선을 확인한 후 분

할매수에 나서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 주식 가격제한 상·하한폭 확대 추진

현행 ±15%로 설정돼 있는 가격제한 폭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0일 본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가격제한폭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박사가 'KRX 가격제한폭 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엄 박사는 "개별종목의 경우 가격제한폭에 따른 역기능이 크고, 15% 가격제한폭은 개별주식 수익률의 변동성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았다"며 "상·하한

가 도달 빈도수도 가격제한폭이 8%였던 기간 가장 높았던 반면 현행 15%에서는 가장 낮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엄 박사는 "개별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역면가 미만의 저가주로 매매회전율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시장 전체에 대한 변동성 제한조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증권시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제한폭 개선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 원자재가 급등... 3분기 교역조건 최악

### 작년보다 3.1% 하락

원유, 곡물 등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수입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3·4분기 교역조건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07년 3·4분기 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운송물 교역조건 지수(2000년=100)는 69.0으로 전 분기 대비 3.2%, 작년 동기 대비 3.1%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운송물 교역조건 지수는 한 단위 수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하며 이 지수가 69라는 것은 100개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으로 69개만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3분기에는 수출 단가와 수입 단가가 모두 상승했지만 수입 단가가 훨씬 많이

올라 교역조건이 나빠졌다.

수출 단가는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0.9% 오르는데 그쳤지만 수입단가는 원유, 철강재, 곡물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4.2% 상승했다.

수산물 교역 지수는 2005년 1분기 81.3에서 시작해 2분기 78.9, 3분기 77.6, 4분기 78.2, 지난해 1분기 75.1, 2분기 72.4, 3분기 71.2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4분기 73.6, 올 1분기 74.0으로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2분기 71.3을 기록,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독 교역조건 지수는 운송물 교역조건 지수에 수출 물량 지수를 곱해 산출하며 계절별로 수출 물량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등락 추이를 파악한다. /연합뉴스

## 이 회사 왜 들어왔지?

### 직장인 82% 연봉 적고 비전 없을때 후회

대다수 직장인들은 연봉이 적거나 회사 앞날이 막막할 때 이사를 후회한 적이 있었다고 나타났다.

20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천754명을 대상으로 '회사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81.5%가 '있다'고 답했다.

이사를 후회할 때(복수응답) 직장인들은 주로 '업무량에 비해 연봉이 너무 적을 때'(45.7%)와 '회사의 비전이 안 보일 때'(44.8%)를 꼽았다.

'회사 일에 치여 사생활이 없을 때'(36.0%), '상사, 동료와 마찰이 있을 때'(32.7%), '자기개발이 안될 때'(30.9%)에도 직장 생활에 회의를 들었다.

이사를 후회한 이들 중 36.4%는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 4년제 대졸 평균 연봉

### 사원 2,136만원

### 과장 3,637만원

사원의 평균 연봉은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2천136만원, 대리는 3천16만원, 과장은 3천6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살러리는 자사에 등록된 기업 연봉 데이터 8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직급별 평균 연봉이 이 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사원은 0.7%, 대리는 1.8%, 과장은 4.1% 각각 올랐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석유화학의 각 직급별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사원의 경우 금융이 2천498만원, 석유화학 2천444만원이었고, 대리는 각각 3천808만원과 3천240만원, 과장은 4천798만원, 3천947만원 등이었다. 반면 물류 운수 사원의 평균 연봉이 1천983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리와 과장급은 건설업종이 2천806만원, 3천297만원으로 업종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기업 기밀관리 이래서야 ...

### 1000대 기업 60% 전담직원 없어 속수무책

### 내부인사 마음만 먹으면 빼돌리기 가능

국내 주요기업 가운데 60% 가량은 내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기밀 유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응답업체 505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기밀유출 대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성공가능성'에 대해 '사전계획을 통해 가능하다'(52.9%)거나 '어려움없이 유출할 수 있다'(6.8%)고 밝힌 기업을 합해 가능성이 인정한 기업이 59.7%에 달했다.

반면에 '관리감독 강화로 적발될 것'(29.2%)이라거나 '철저한 보안시스템으로 원천 불가능하다'(11.1%)는 응답은 합쳐서 40.3%에 그쳤다.

내부직원의 기밀유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이 67.6%로 대기업의 56.4%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기밀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조치에 대해 '사전계획을 통해 가능하다' 타업무와 함께 담당한다(38.8%)거나 '담당직원이 없다'(30.8%)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별도의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13.9%)거나 '다수의 전담직원이 있다'

(12.3%)고 밝힌 기업은 소수에 그쳤다.

전담직원 보유기업의 비율 역시 중소기업은 16.4%로 대기업의 36.5%보다 훨씬 낮아 기밀유출 대응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보안 대책 가운데 '보안관리 규정 및 지침'(78.2%), '보안등급 부여 등 문서관리시스템'(78.2%), '거래업체와의 비밀계약유지'(72.3%), '입·퇴사시 비밀엄수계약'(88.2%)과 같은 관리적 보안대책과 '카드기 등 외부인 출입제한장치'(83.0%), 'CCTV'(72.0%), '온라인 방화벽' 등 물리적 대책은 활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이메일, 통신 모니터링'(55.0%), 'USB, CD 등 저장매체 종 합관리'(52.4%)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시행중인 기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기상정보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22	062-941-1637
매스씨앤씨	대구·광주지역 디자이너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3	070-7017-3180
부민	지정직 부흥 조립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23	062-943-6508
유니스트전자	정규직 생산설비 관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3	062-955-1532
사이닉스	사이닉스(주) 의뢰기 영업 관련 부서직원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11/23	062-602-7842
중앙생명(주)-본사	[업계1위] 고객상담원200명남여[주5일, TV방송중]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1/26	02-518-2769
씨에이치솔루션	SK텔레콤(송정리) 멀티 CRM센터 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1/28	02-456-9799
삼성출판사서평교육본부	유치원 영어교사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28	062-373-5346
휴로넷	[고정급148만원]SK텔레콤(광주)멀티CRM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1/28	011-299-7000
한국차량공업	설계담당 및 생산기술담당	대졸/경력6년	3600~3800	11/28	062-958-3316
AIG손해보험	[AIG 순천 CS 센터]제3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1-906-7632
얼린	사무, 경리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30	062-233-3230
제이티에스	웹프로그래머,유지보수요원,사무관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365-6465
에코포유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설치 및 A/S기사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30	02-3474-063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보>

## "내년 5%대 성장 가능할 것"

### 한덕수 총리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비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 초청 연례 오찬에서 "올해 환율, 유가 등의 대외 여건이 어려웠지만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4.9-5.0%에 달할 것으로 보여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에는 성장률이 5%

대에 올라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개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EU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연례 오찬에서 "올해 환율, 유가 등의 대외 여건이 어려웠지만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4.9-5.0%에 달할 것으로 보여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에는 성장률이 5%